

탄광지역 청소년의 학업성적 및 가구소득 차이와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의 융복합 상관 연구

김선조¹, 이성애¹, 이예은¹, 박형렬¹, 정중우², 송보경^{3*}

¹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의료재활학과 작업치료전공 석사원생 ²보바스기념병원 재활치료부 작업치료사, ³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Stres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household Income of Youth in Coal Mine Areas

Seon-Jo Kim¹, Seong-Ae Lee¹, Ye-Eun Lee¹, Hyung-Ryul Park¹,
Jung-Woo Jeong², Bo-Kyoung Song^{3*}

¹Students of Master,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obath Memorial Hospital

³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탄광지역 청소년의 학년, 학업성적, 소득수준의 차이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과의 융복합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은 태백 및 삼척 도계 탄광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87명을 대상으로 학년, 학업 수준 및 소득수준과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를 기술, 빈도분석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2학년은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득수준 및 학업수준에 따라 교우관계와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강원 태백 및 삼척도계 탄광지역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와 원활한 학업 활동을 위하여 탄광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 청소년, 탄광지역, 빈곤, 스트레스, 교우관계, 우울,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 differences in grade (G), academic performance (AP), and household income (HI) on adolescents' stress (S), peer relationship (PR), and depression (D) in the coal mine area. The study method was to measure S, PR and D according to different of G, AP, HI for 87 middle school students located in Taebaek and Samcheok Dogye area.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 in the 2nd G,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PR and D according to HI and AP.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program for P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al mine area, and to develop and support a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community for stress relief and academic activities, especially for low HI.

Key Words : Youth, Coal mines area, Indigence, Stress, Peer relationship, Depression, Convergence

*This study was supported by "Brain Korea 2021 stage four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Bo-Kyoung Song(bksong@kangwon.ac.kr)

Received December 10, 2021

Revised December 23,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경제불황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은 취약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문제를 발생한다[1]. 이중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 발달에 비해 심리와 정서 발달의 미숙으로 인하여 우울 등이 심각해진다[2]. 청소년의 우울은 자살율과 상관성이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7.5%에서 우울을 경험하고 남학생 28%, 여학생 38.2%은 1년 혹은 2주 이상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3,4]. 이중 빈곤지역의 청소년 우울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나고 가계의 저소득은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5]. 태백 및 삼척도계지역의 석탄산업 쇠퇴는 점진적인 빈곤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6].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초기 전환기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중학 과정은 초등 과정과 다른 운영과 신체, 심리, 사회적 성장을 경험한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의 활동은 친구와 교사의 또 다른 대인관계로 환경변화의 다른 경험을 체험한다. 중학생의 급속한 신체 변화와 사회적인 경험은 다양한 문제로 발전하고 그에 따른 혼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진다[7].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학교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우관계로 확장된다. 따라서 가족관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관계로 학교 환경, 교사나 가족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다. 교우관계는 상호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8]. 청소년기는 관심이나 흥미가 가정에 학교와 친구로 옮겨져 교우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부적절한 교우관계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판단된다[9]. 청소년의 우울은 사춘기 시기에 경험하는 변화와 연관하여 성인의 우울과는 차이가 있다. 증상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 짜증, 피로, 두통 및 불면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10]. 청소년의 우울은 학업뿐만 아니라 가족, 교우관계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및 교우관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강원도 탄광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오염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을 뿐 탄광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학업수행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 연구를 기반으로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빈곤층이 점차 증가하는 강원도 태백 및 삼척도계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년, 학업성적, 소득수준 차이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는 태백 및 삼척도계의 탄광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87명으로 1학년 25명(28.7%) 2학년 31명(35.6%) 3학년 31명(35.6%)이었다.

2.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version 프로그램과 Kim (200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는데 다변량 분산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0.30,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은 0.90을 기준으로 하여 총 80명으로 산출하였고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총 96명을 표본수로 결정하였다[12]. 설문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탄광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예비 설문을 시행하여 설문 시간과 항목 등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강원 탄광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중학교에 전화로 설문 연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이중 학교의 방문 설문을 허락한 태백 및 삼척도계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2곳의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확인하였고 설문에 참여할 중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설문을 진행하였다. 해당 중학교를 방문하여 코로나 19의 방역기준을 준수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고 총 90명의 중학생에게 설문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응답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한 설문지 3개를 제외한 87개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측정 도구

2.3.1 스트레스 측정도구

김달래(2018)가 사용한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3].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자기 자신 관련 하위 요인은 본 연구와 연관이 없어 제거하였다. 스트레스 설문 하위 항목으로는 학교영역 5문항, 가족영역 5문항, 교우관계 영역 5문항, 생활환경영역 5문항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요인별 점수는 5-25점, 총점은 20-10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2.3.2 교우관계 측정 도구

이혜경(2016)이 사용한 교우관계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만족, 민감, 신뢰, 의사소통, 이해, 친근, 개방 등을 측정하였다 [14].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우울 측정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 연구를 기반으로 전점구 등이 수정한 한국판 CES-D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5,16]. CES-D는 일주일간 경험한 우울의 정도를 측정한다. 척도의 하위 요인인 우울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3가지 요인의 16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점구 등(2001)의 한국판 CES-D의 내적 일치도는 0.91이었고[17] 본 연구의 검사자 간 신뢰도의 Cronbach's α 는 0.94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연구대상자의 학년, 학업수준, 소득수준, 스트레스, 교우관계, 우울을 알아보고자 기술,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고 학년별, 학업수준,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 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post hoc test)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통계의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과 같이, 설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은 총 87명으로 1학년 25명(28.7%) 2학년 31명(35.6%) 3학년 31명(35.6%)이고 성적 수준은 평균 2.07±0.728로 하위권 26명(29.9%), 중위권 41명(47.1%) 상위권 20명(23.0%)으로 많은 학생이 중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3.11±0.72로 적다 2명(2.3%) 조금적다 6명(6.9%) 중간 65명(74.7%) 조금 많은편 8명(9.2%) 많다 6명(6.9%)으로 대부분 중간수준의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스트레스 크기는 46.87±12.96점, 교우관계는 72.17±12.50점, 우울은 24.30±9.50점으로 확인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N=87)

Variable		N(%)
G	1	25(28.7)
	2	31(35.6)
	3	31(35.6)
AAL	Lower	26(29.9)
	Middle	41(47.1)
	Higher	20(23.0)
HIL	Less (20% or less)	2(2.3)
	A little less (less than 40%)	6(6.9)
	Moderate (60% or less)	65(74.7)
	A little too much (80% or more)	8(9.2)
	Many (100%)	6(6.9)

G: grade, AAL: academic achievement level, HIL: household income level

3.2 학년별 소득수준, 학업수준과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의 특성 비교

Table 2와 같이, 1학년의 소득수준은 3.08±0.81점, 학업수준 2.08±0.81점, 스트레스는 45.52±15.40점, 교우관계는 67.92±15.72점, 우울은 25.60±10.10점으로 조사되었다. 2학년의 소득수준은 3.10±0.40점, 학업수준 2.03±0.66점, 스트레스는 45.52±15.40점, 교우관계는 67.92±15.72점, 우울은 25.60±10.10점으로 확인하였다. 3학년의 소득수준은 3.16±0.90점, 학업수준 2.10±0.75점, 스트레스는 48.87±11.25점, 교우관계는 72.13±12.15점, 우울은 22.71±7.14점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 교우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학업수준, 소득수준 스트레스, 우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AAL, HIL, S, PR, and D among grade (N=87)

Variable	Total (N=87)	1 Grade (N=20)	2 Grade (N=41)	3 Grade (N=26)	F	p
AAL (point)	2.07±0.73	2.08±0.81	2.03±0.66	2.10±0.75	0.063	0.939
HIL (point)	3.11±0.72	3.08±0.81	3.10±0.40	3.16±0.90	0.101	0.904
S (point)	46.79±12.94	45.52±15.40	45.74±12.51	48.87±11.25	0.618	0.542
PR (point)	72.17±12.50	67.92±15.72	75.65±8.68 ^a	72.13±12.15	2.749	0.040 [*]
D (point)	24.30±9.50	25.60±10.10	24.84±11.04	22.71±7.14	0.713	0.493

^{*}p<0.05, post hoc: a>b=c, M±SD: mean±standard deviation, AAL: academic achievement level, HIL: household income level, S: stress, PR: peer relationship, D: depression

3.3 대상자의 소득수준, 학업성과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의 비교

Table 3, 4와 같이, 소득수준은 교우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학업수준은 교우관계와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p<0.05).

Table 3. Comparison of S, PR, and D according to HIL of subjects (N=87)

Variable	HIL	F	p
S (point)	1 (N=2) 36.00±9.89	1.329	0.266
	2 (N=6) 50.50±10.11		
	3 (N=65) 48.00±13.46		
	4 (N=8) 40.13±12.71		
	5 (N=8) 42.50±5.99		
PR (point)	1 (N=2) 53.00±11.31 ^a	3.265	0.015 [*]
	2 (N=6) 65.83±10.50		
	3 (N=65) 72.45±11.90		
	4 (N=8) 82.13±12.08 ^a		
	5 (N=8) 68.67±12.91		
D (point)	1 (N=2) 26.50±6.36	0.089	0.986
	2 (N=6) 25.17±6.71		
	3 (N=65) 24.34±9.65		
	4 (N=8) 22.75±8.45		
	5 (N=8) 24.33±14.19		

^{*}p<0.05, post hoc: a, M±SD: mean±standard deviation, 1: less, 2: little, 3: normal, 4: a little too much, 5: many, HIL: household income level, S: stress, PR: peer relationship, D: depression

Table 4. Comparison of S, PR, and D according to AAL in the subjects (N=87)

Variable	AAL	F	p
S (point)	1(N=20) 50.25±13.34	0.954	0.389
	2(N=41) 45.46±11.72		
	3(N=26) 46.23±14.41		
PR (point)	1(N=20) 72.30±14.72 ^a	3.190	0.046 [*]
	2(N=41) 74.78±11.23		
	3(N=26) 67.19±11.55 ^b		
D (point)	1(N=20) 20.15±03.12 ^b	3.321	0.041 [*]
	2(N=41) 24.46±09.62		
	3(N=26) 27.23±11.51 ^a		

^{*}p<0.05 post hoc: a>b M±SD: mean±standard deviation, 1: low, 2: medium, 3:high, AAL: academic achievement level, S: stress, PR: peer relationship, D: depression

4. 고찰

강원도 태백 및 삼척도계지역은 다른 강원지역에 비하여 석탄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 원동력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 석탄 산업의 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쇠퇴하였고 이는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유출로 나타나고 있다[18]. 가구의 경제수입 감소 및 경제불균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건강 및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증가시킨다[19]. 이에 본 연구는 석탄사업의 쇠퇴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강원도 태백 및 삼척도계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년, 학업 성적, 가구소득이 중학생의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87명의 중학생의 학년 차이별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는 학력수준과 가구의 경제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중학교 2학년 학생과 다른 학년 간에서 교우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신체,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자의식이 발달하고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20]. 성인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신체적인 특성에 비해 심리, 사회요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교우와의 갈등, 소외, 이성 문제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진다. 중학교 2학년은 중 2병이라 신조어로 대표되는 대상으로, 부정적인 수업태도, 학교폭력 등에 쉽게 연계하여 교우관계에서 부정성을 나타낸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불충분한 가정의 지원과 상관성이 크다[21]. 중학교의 원활한 교우관계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가정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로 제거하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심리, 정신요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적으로 교우관계를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다양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상자의 학업성적과 소득 차이가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의 경제수입 감소는 청소년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등에서 위험요소를 가중시킨다. 가정의 불안정한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압박은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부모의 우울 수준을 높인다[22].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적대적인 행동과 신체적인 학대로 이어져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살 충동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학생은 부유한 학생에 비해 음주, 흡연, 약물 남용에 쉽게 노출되고 자살 생각이나 우울을 쉽게 경험한다[23]. 가정의 경제수준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발생하는 일차적인 요소로 정신건강과 교우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과 비교해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와 경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취약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24]. 따라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경제력의 차이는 우울과 교우관계에 중요한 부정 요소로 판단된다. 특히 탄광지역의 경제수입 구조의 한계성을 가진 취약지역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취약지역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탄광지역의 경제빈곤 청소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지역사회 빈곤 가구의 만 12세까지 취약계층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취약 가구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건강, 언어건강, 정서 및 행동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4]. 하지만 경제빈곤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보건소 및 센터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일부의 빈곤 청소년들이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 탄광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빈곤가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탄광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25].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설문에 참여하는데 기관과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연구의 대상자와 기관을 확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태백, 삼척 도계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학년, 학업성적, 소득수준의 차이가 스트레스, 교우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융복합 상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교 2학년의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득수준 및 학업수준 차이에 따라 교우관계와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석탄사업의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는 탄광지역 중학생의 교우관계 및 스트레스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원활한 학업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탄광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S. J. Choi & Y. S. Koh. (2014). Effect of Combined Program of Horticultural Therapy and Forest Therapy on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and Life Respect of Low Income Family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1), 671-698.
- [2] S. H. Zheng & K. E. Lee. (2021).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Smart Phone Addicted Adolescents: Focusing on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of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70(3), 155-183.
- [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5th Adolescent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Statistics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460736-000038-10)*, Seoul: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2012 Youth White Pap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5] S. H. Park, J. N. Yang & E. J. Choi.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Residing in Low-Income Area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301-323.
- [6] S. Y. Han, S. K. Park, J. Y. Lim, D.S. Yoon, G. H. Na, D.Y. Seo & B. K. Song. (2019). The Effects of

- Mentoring based Interest Promotion Program on Self Expression,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Mine Area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3(1), 59-70.
- [7] Y. O. Nam. (2013).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283-304.
- [8] E. J. Kim. (2009). How Do Korean Adolescents Voluntarily Turn to Be Entrance Exam Prepare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3(2), 85-129.
- [9] K. S. Eun, G. Park, Y. I. Kwon & S. N. Jung. (2011). *Transition for Youth to Adulthood : Vulnerable Youth's Transition to Adulthood*.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28.
- [10] T. H. Kim & P. Ki. (2019).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s on Depression in Middle-Aged Parents with Teenage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oneliness. *Family and Culture*, 31(3), 1-33.
- [11] E. H. Ha, K. J. Oh, D. H. Song & J. H. Kang.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263-279.
- [12] H. S. Kim. (2009).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Self Efficac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1), 203-225.
- [13] D. Kim. (2018).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the Somatization Symptoms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odul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4] H. K. Lee. (2016). *The Effect of Restorative Life Education Program on Class Cohesion and Peer Relations of Early Adolescent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5]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 10.1177/014662167700100306Radloff(1977)
- [16] K. K. Chon, S. C. Choi & B. C. Yang.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17] K. K. Chon, S. C. Choi & B. C. Yang.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18] S. H. Chung. (2004). Regional Decline and Sociodemographic Change in Kangwon Southern-Belt Mine A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205-229.
- [19] J. Y. Kim, D. G. Lee & Y. K. Chung. (2013). The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between Stressors and Depression in Youth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99-126.
- [20] M. S. Shin, K. B. Park & K. J. Oh. (1991).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286-297.
- [21] J. H. Heo, Y. T. Cho & S. M. Kwon. (2010).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s on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2), 93-120.
- [22] B. K. Park. (2009).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Path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1(1), 207-235.
- [23] H. Y. Lee, Y.K. Lee, H. R. Lee & H. J. Yoon. (2009). *A Study on the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risis Families and Welfare Support Measur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12.
- [24] D. H. Park & S. N. Jang. (2013). Influence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67-2676.
DOI : 10.5762/KAIS.2013.14.6.2667
- [25] S. Y. Han. (2018). *The Effect of Poverty on Adolescent Heal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umulative Risk Factor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 선 조(Seon-Jo Kim)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보바스기념 병원 작업치료사
- 202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신경작업치료학, 체감각 재활, 신경퇴행성치료
- E-mail : kom0916@naver.com

박 형 렬(Park-Hyoung Ryul) [정회원]



- 2021년 2월 ~ 현재 : 서송병원 작업 치료사
- 202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일반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신경작업치료학, 강제유도 운동치료, 삼킴치료
- E-mail : gudfuf0616@naver.com

정 중 우(Jung-Woo Jeong) [정회원]



- 2018년 8월 : 강원대학교 응급의료 재활학과 물리작업치료학(이학석사)
- 2021년 8월 : 강원대학교 응급의료 재활학과 작업치료학(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보바스기념병원 작업치료사

- 관심분야 : 뇌신경재활, 수부치료학, 신경가소성
- E-Mail : j2wot@naver.com

송 보 경(Bo-Kyoung Song) [정회원]



- 2012년 2월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 박사)
- 2016년 9월 : 인제대학교 의생명대학원 작업치료학(석사 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신경작업치료학, 근골격계 작업치료학, 수부치료학, 신경가소성 및 뇌신경 재활
- E-Mail : bksong@kangwon.ac.kr

이 성 애(Seong-Ae Lee) [정회원]



- 2013년 3월 ~ 2017년 2월 : 인제 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학사)
- 2017년 2월 ~ 현재 : 청담병원 작업 치료사
- 202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신경작업치료학, 감각운동재활, 신경운동학습
- E-mail : salee0127@naver.com

이 예 은(Ye-Eun Lee) [정회원]



- 2018년 2월 ~ 2021년 11월 : 브래덤 병원 작업치료사
- 2021년 11월 ~ 현재 : 시흥서울대효 요양병원 작업치료사
- 202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일반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신경작업치료학, 체감각퇴행성치료, 신경운동학습
- E-mail : bobo8330@naver.com